

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 쇼 및 세미나(제1회 · 제2회)

Seoul International Database Show & Seminar('94. '93)

“ 국내 정보산업의 신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만날수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전문 전시회와 국내외 정보산업의 흐름을 전달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면모를 갖춘 제3회 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 쇼 및 세미나가 많은 참여기업과 참관객들의 호응속에 개최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3회 행사의 성과 분석에 앞서 지난 제1회 및 2회행사의 개최결과를 재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

1. 개요

데이터베이스가 미래 고도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저간의 상황 구축에 비록 짧은 경륜을 가진 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 쇼 및 세미나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 즉,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선진국으로 굳건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물론 관련 산·학·연 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산업의 조기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집을 본 행사를 통해 표출되도록 한 점이 국내 관련 산업의 미래를 밝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선진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역사나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전문 전시회/세미나 - 이를테면 미국의 The National Online Meeting 이나 DB/EXPO, 영국의 Onlie Information Meeting, 일본의 DB SHOW 등 - 에 아직 어깨

를 견줄만 하지는 못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으로 받돋움 하고 또 세계적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 최측이나 참여측이나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제1회 및 2회 행사의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전시회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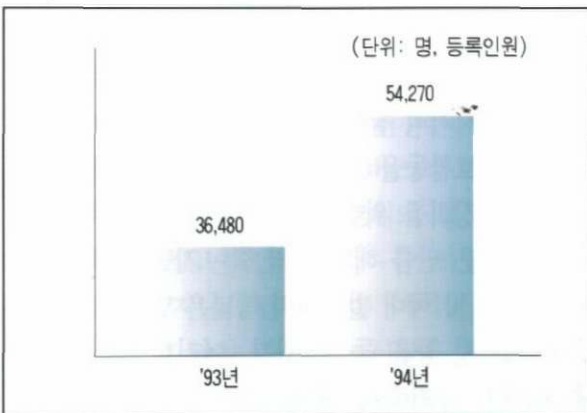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설립 첫해인 '93년 첫회 행사는 여러가지 미비한 여건속에서도 51개 기관이 참여 하였다. 산업전반적으로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과 나아가 조기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적이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추진이 본격 시작되기도 했던 '94년 제2회 행사는 규모면에서 40% 정도의 성장은 있었지만 참여기업체 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조하였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발표시기와 전시행사를 연계하여 참여코자 하는 선택에 연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

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관련 주변산업과 비교하여 볼때 아직까지도 취약한 상태(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과 PC매출액의 비교가 '93년말 기준으로 볼때 884억원 대 8,940억원인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전시행사 참여에 대한 인식부족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더라도 '94년말 기준으로 국내 유통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유통 업체수가 총 357개 기관이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체기업의 7분의 1정도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체의 영세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에 있다고 보지만 이 행사가 보다 새로운 국면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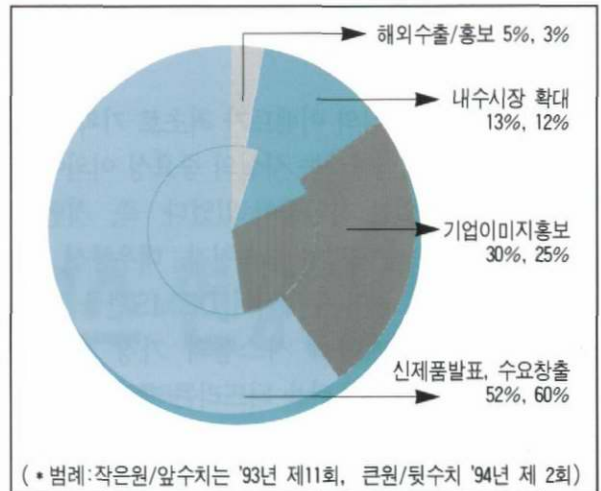
가. 참관객 현황

본 행사에 대한 참관객의 관심은 횡수가 거듭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는바, 이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마인드의 저변확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참관객 분포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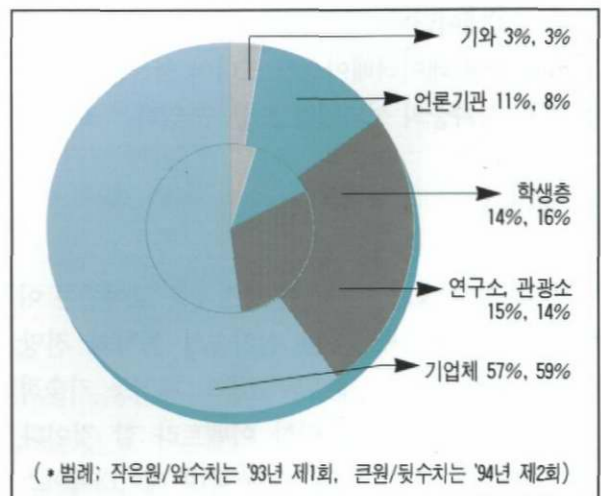
참관객의 분포별 특성을 살펴보면 단연 기업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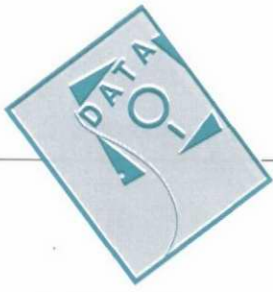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학생층 보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생층보다 직장인이 실제 하드웨어 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향후 동향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참가업체의 참여동기

본 행사의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지난호에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역시 전시회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제품의 발표를 통한 수요창출과 내수시장 확대가 가장 큰 동기였으며 기업이미지 제고 홍보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요 성과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이벤트가 최초로 기획된 제1회 행사는 그 첫번째라는 사실의 중요성 이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 즉, 첫번째로 국산 DBMS를 개발한 삼성전자, 대우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이 주축되어 DBMS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DBMS 국산화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두번째는 고화질 영상, 전자출판, 대용량 정보저장매체등 CD-ROM 관련제품의 집중 출시로 인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천연물과 학정보, 로이터코리아의 로이터통신에서 제공하는 뉴스.금융.투자.기업 관련정보, 그리고 건설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업체의 건설 관련 데이터베이스등이 처음으로 본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2회 전시회에는 중앙일보사의 멀티미디어 전자신문이 첫선을 보여 신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신호탄을 발사한 점, 매일경제신문사의 매경스카우트가 처음 선보여 국내 최고의 온라인 취업정보서비스로 각광받게 된 점, 무엇보다도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조기 집중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94년부터 년 200억원씩 투자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번째 개발된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드디어 첫선을 보이게 된 점이 성과중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5. 세미나

전시회가 기술과 서비스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이벤트라 한다면, 세미나는 신기술의 동향과 전망, 기술의 공동자원화, 새로운 표준의 제정등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위한 이벤트라 할 것이다. 행사 첫해인 '93년 컨퍼런스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조기 집중육성을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전개하는 의미에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현황의 조망,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활용과 기대효과, 이용자측면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통 표준화등을 주제로 열린 논의가 있었다. 두번째해 행사에는 보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부분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CD-ROM, 멀티미디어, 시소러스, 지역정보화, 국가행정전산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형성된 것이다.

6. 맺음

지금까지 제1.2회 서울 국제 데이터베이스 전시회 및 세미나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은 미흡한 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업이 한층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또한 본 행사가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서이다. 그러나 역시 본 행사의 미흡한 점을 간과 한다면 본 행사의 목적 달성이 더더질 수 있을 것이다. 제1·2회 행사를 치루면서 미흡했던 점을 고백한다면 많은 참가업체들이 그들의 신제품 발표시기와 전시행사를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시기적 참여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업종 업체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과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해외 유명 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유치 및 국내 발표진의 폭넓은 발굴과 보강을 요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대개가 주최측에 대한 요구사항들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 개선코자 하는 바이다. 다음호에서는 금번 개최된 제3회 행사에 대하여 결과 분석을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DC